

더불어 숲이 되는



만덕사람들

2009년 7호
11·12월

발행·편집 : 만덕사람들, 만덕종합사회복지관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전화 : 332-8004 | 후원 : 북구, 사상구 복지컨소시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cafe.daum.net/mandukpeople>



만덕동에는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알록달록 지붕마을이 있대요!

만덕동의 색색깔 지붕이 눈길을 사로잡는 지붕마을은 그 모양이 레고 같다고 해서 레고마을, 혹은 동화 속의 마을 같다고 해서 앨리스 마을이라고 애칭이 붙기도 했다고 해요.

실제로 다른 지역은 평범한 양옥집인데, 희한하게도 이 구역만 이렇게 형형색색 알록달록한 지붕을 한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참, 이 곳은 TV에서도 소개된 곳이라고 해요.

만덕에는 한국전쟁 이후에 갑자기 늘어난 인구로 산을 깎지 않고 집을 지어 이렇게 산복도로 위의 집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넓게 바라 본 풍경이 더욱 아름다운 동네가 아마 만덕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만덕동에서는 또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동네 수호천사

우리동네 수호천사란?

만덕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세대(장애인세대, 홀로어르신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맞벌이로 인해 야간양육이 힘든 세대)를 돕는 가족들로 만덕을 지키는 수호천사를 칭합니다.



만덕동에 새로운 나눔 활동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동네수호천사”입니다.

매일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는 홀로어르신에게 밑반찬 가져다주는 수호천사가족,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수호천사가족, 가족사진이나

돌사진을 찍지 못하는 가정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가족,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는 무료로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

원해주는 가족 등 도움의 방법은 다르지만 만덕동 내에서 우리동네 수호천사들의 활동들이 하나 둘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수호천사가 만덕 곳곳에 생겨난다면 만덕동은 지역 내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할 수 있는 마을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거나 직접 우리동네 수호천사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만덕복지관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박은미 사회복지사 ☎ 332-8004

우리마을 소식

만덕 1동 희망복구 나눔페스티벌 종합 대상 수상!

북이주민자치박람회와 미래복지특화박람회를 통합한 제1회 희망복구 나눔페스티벌이 10월 15, 16일 문화빙상센터 일원에서 펼쳐졌다. ‘행복한 동행,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주민자치회와 복지관, 지역의 기관과 유망업체가 대거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공연발표, 작품전시, 우수사례발표 등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 경연행사에서는 상계봉 해맞이 행사를 소개하고 천연화장품 만들기 체험코너 등을 운영한 만덕1동이 대상을 차지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한 만덕사람들의 가을은행일 축제 취소

올 가을 제 5회 ‘만덕사람들의 가을은행일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신종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지난 2년 간 준비한 축제를 취소하기로 하였다. 만덕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단합하는 축제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

마을 전체가 흰해졌습니다.

만덕3동이 흰해졌다. 8월 초부터 희망근로사업으로 시행한 간선로 주변 환경개선사업들이 속속 완료되면서 마을 전체의 분위기 한층 밝아졌다. 이번에 진행된 환경개선사업은 907-1번지에 위치한 노후계단정비공사, 럭키2차아파트 앞 간선로변의 옹벽과 간선로면 법면(경사면) 정비 등이다.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계단을 새로 시공하고 부식된 철제 손잡이는 스테인리스 소재로 교체했고 옹벽에는 페인트를 칠했다. 또 법면에는 뽕나무, 사철나무 등 300여 그루를 추가 심고 투기된 쓰레기를 싹 정리해 ‘푸르고 깨끗한 만덕3동’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주민 기자 및 주주모집

만덕사람들은 만덕 마을 이야기를 담아내는 소박한 그릇입니다. 마을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기자 또는 주주로 참여해주실 분을 모십니다.

· 1구좌 월 5천원

※ 마을 신문 현재·격월 발간 1회당 33만원 소요

※ 33명의 주주가 참여하면 안정적인 마을 신문 발간 가능

<http://cafe.daum.net/mandukpeople>

“+ONE” 김장김치나눔사업

**“김장 담그실 때 한포기만 더 담그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우리 마을 구석구석을 살
맛나는 세상으로 만듭니다.”**



‘+ONE’은 말 그대로 ‘하나만 더’라는 의미로 김장철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김장 하실 때 한포기만 더 한다고 생각하고 지역에 김장김치 한포기를 후원해 주면 이를 지역 내 어려운 어르신 및 소외계층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하는 사업이다.

‘+ONE’는 푸른복지사무소와 연계해 대구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민 나눔 활동으로 올해 전국 24개 기관이 동일한 사업 브랜드로 함께 추진한다. 부산에서는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영진종합사회복지관, 반석종합사회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참여한다.

‘+ONE’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은 만덕종합사회복지관에 전화(332-8004)하면 된다. +ONE’ 나눔 활동은 올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만덕2동 도서관길이 달라졌다

만덕2동 도서관길과 백양공원 일원이 깔끔하게 단장되었다.

이 지역은 ‘만덕사람들의 가을은행잎 축제’가 개최되는 곳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정비작업을 벌여왔다.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축제의 고장이자 좋은 등산로를 지닌 고장임을 부각시켜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상징 아치 설치, 공연장 관객석 확보, 등산객용 먼지털이기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상징아치는 구포농협 신만덕지점 옆 도서관길 입구에 세워졌고 ‘만덕사람들의 가을은행잎축제거리’라는 글씨가 적혀있으며 가장자리는 은행잎 문양으로 장식됐다. 또 공연장 관객석 확보 문제는 공연장으로 이용하는 공터 중앙에 있던 종합놀이시설을 한쪽으로 이동시킴으로 해결했다. 먼지털이기는 고압의 공기를 분사해 옷과 신발의 먼지를 털어내는 기기로 등산로 입구에 설치했는데 벌써부터 등산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겠다는 만덕2동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거리 양쪽에 도열한 은행나무의 형태를 닮은 가지치기를 마무리했으며 등산객이 찾아오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후된 보도와 가로등을 정비하고 백양산 등산로 등 축제거리 주변을 안내하는 홍보판을 세우기로 했다.



자신보다는 남을...

풍성한 가을이 지나고 벌써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부산 북구에는 금정산과 백양산이 우뚝 솟아 있으며, 낙동강 1300리의 물결은 소리 없이 흐르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시원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북구 만덕 주민들은, 금정산 백양산처럼 늘 푸른 마음을 갖고, 자신보다는 남을 위한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며,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산을 오르려면 산을 보아야하고 강을 건너려면 강을 보아야합니다. 산을 보지 않고서는 산에 오를 수 없으며, 강을 보지 않고서는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서서히 어둠에 빛을 빼앗기는 노을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환희에 넘치는 평온을 음미하는 시간이라고 70대의 필자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만덕 동민 여러분! 항상 즐겁게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며 살아갑시다!

글 || 부산시 북구 강신희
(만덕사람들 다음카페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지난 5월, 만덕동에 강영숙(가명, 58세)씨가 이사를 왔습니다.

6년 전, 불의의 사고로 온 몸에 화상을 입고 시력까지 잃게 된 영숙씨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만덕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을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영숙씨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처음 보는 동네를 혼자서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영숙씨는 용기를 내 복지관으로 전화를 했고 만덕복지관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영숙씨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지역 내에서 이웃을 돕고 살고 싶다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이 부부와 영숙씨가 만나게 된다면 영숙씨의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부와 영숙씨를 만나게 해주었고 이후 복지관의 도움 없이도 이들은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장도 가고 밥을 같이 먹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도 가면서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영숙씨에게 전화를 드리면 함께 만나는 부부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가족을 통해 영숙씨의 삶에 새로운 행복이 샘솟고 있습니다.



♥ ♥ ♥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 ♥ ♥

희망의사다리운동 후원 감사합니다.

- 등마루산악회, (주)온유조경, 고려문화사과관, 박진영, 신은희, 신종국, 권기형, 이영수, 강기원, 홍선옥, 이필남, 정신모

♥ 희망의사다리운동 후원계좌
부산은행 227-01-001469-9 (예금주 만덕복지관)

♥ 도움이 필요할 땐 연락해주세요. ☎ 332-8004

복지관 사람들

백양산 기슭에 자리한
만덕사회복지관

글 || 정산(靜山) 강구중

그 곳이

내 삶의 등지인 것을
이제야 알았다

인생은 짧아도 예술은 길다는
영원성에 도전하는
복지관 사람들

시간의 유한성에
무한으로
오늘도 구슬땀 흘리다

흘어지는 노래 소리
춤 소리
아이들 공부 소리
젓가락 소리...

함참되어
그로 인하여
모두가

배를 탄다
수레를 굴린다
하늘을 난다

꿈이 햇살처럼 영글어
넘쳐나는
판타지아여!

시간을 멈추게 한 복지관 사람들
자꾸 모여라, 모여라!

- 2009.7.23.오후에 만덕에 거주하는 한 시인이 쓰다 -

우리동네 좋은이웃

1. 컴퓨터 잘 고치는 집

컴퓨터 잘 고치는 집에서는 매월 꾸준히 5세대 정도의 저소득가정에 컴퓨터를 고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장님이 바뀌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덕을 위한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쿠키토크와자점

청소년 공부방을 위해 잊지 않고 간식을 후원해 주시는 쿠키토크와자점 감사드립니다. 정성들여 직접 만들어 주시는 맛있는 빵을 먹고 아이들이 무럭 무럭 자라납니다.

3. 고운스튜디오

저소득 어르신의 영정사진,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돌 기념 사진 촬영 등 지역을 위한 일을 꾸준히 해주시는 고운스튜디오에서 무료 증명사진 촬영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만덕복지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중앙T컴퓨터학원

중앙T컴퓨터학원에서는 우리 지역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 컴퓨터 교육을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은 만덕복지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디지털 도서관을 찾다

북구 디지털 도서관은 부산지하철 3호선 만덕역에서 하차하여 10여분쯤 걸으면 갈 수 있는 곳이다. 부산 북구 만덕동 사거리에 오면 커다란 정자나무 쉼터가 손님들을 반갑게 맞아준다.

이 정자나무는 만덕동 보호수로 지정되었으며 수종은 “꼭나무”, 수령이 300년쯤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만덕 사거리에는 왼편에 구포농협 만덕지점을 끼고 좌우로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혹자는 이 곳을 만덕시장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백양시장”이라고 한다. 이 곳 백양시장은 값도 저렴하고 이 곳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이다. 북구 디지털 도서관으로 오르는 길은 꽤나 큰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한결 푸르름을 뽐내고 있었다. 가을엔 그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다 보니 만덕사람들의 가을은행잎축제가 2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고 한다. 시내에도 도서관은 많지만 디지털 도서관은 이곳뿐이라고 하며, 마을 한가운데 있어 이 곳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다.

이 곳에선 1회에 3권까지 책을 대여하며 기간은 15일, 북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빌려준다. 세계 최고의 갑부 “빌게이츠”의 성공비결이 도서관이었다고 한다. “책 읽는 습관이 하버드대학교 졸업장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의 말에서 책에 대한 진정성과 외경심이 엿보인다. 그의 말대로 책 속에 길이 있다면 도서관은 그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일거란 생각이다. 마음의 양식이 가득하고 지혜가 환하게 불을 밝히는 곳... 도서관이 아닐까?

부산 디지털 도서관과 함께 마음의 양식인 책을 가까이 하여 몸도 마음도 풍요롭게 살찌워야겠다.

글 || 부산갈매기 (다음 블로그에서)



만덕이네 ② 김수빈

이번에 신종플루 예방에 5명사망



요즘 신종플루가 유행!!

요즘 신종플루가 유행!!



만덕(동생) 덕만(언니)

그런데 신종플루 예방법을 알아봐요



신종플루 예방법

1. 사람들 많은 곳에 자주 가지 않는다
2. 기침할 때 손수건으로 막고 한다
3. 손을 깨끗이 씻는다.

* 꼭 지켜주세요 * ♡♡

만덕동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을 주실 분을 찾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덕1동에서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김기만이 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2007년 4월, 상학초등학교 옆 상계봉 산기슭에 작지만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밥먹고, 공부하고, 놀고, 웃고, 고민한 시간이 벌써 2년 반 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2010년 1월에 보상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큰 난관은 저희들 보금자리의 임대료인상이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하고 있어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큰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가정과 같은 환경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중 그룹홈처럼 소규모의 시설입니다. 높은 임대료는 센터 운영자체가 어려워 이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으로 이주할만한 재정이 되지 않아, 마땅히 이주할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센터아동이 30명 정도이기 때문에 약 4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만덕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우리 만덕동 아이들을 위해 장기간 아래와 같은 건물을 무상임대 또는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을 내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 지역 : 만덕1동 또는 만덕3동
- 건축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 필요로 하는 공간면적 : 약40평 이상
- 문의 :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장 김기만
☎ 333-1621, 010-8026-4765



광고를 받습니다.

마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실 분을 찾습니다.
5천원 이상의 작은 돈으로 주민들께 소중한 광고를 내실 수 있습니다.
광고료는 만덕사람들 신문 발간에 사용됩니다.
만덕사람들은 격월 3,000부가 배부됩니다.

☎ 332-8004

신문 배부처를 찾습니다.

마을 소식지 만덕사람들을 배부해 주실 곳을 찾고 있습니다.
☎ 332-8004



* * 아동안전지킴이 * *

최근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자 초등학교 안전 지킴이로 노인들이 나섰다.

대전 서구는 초등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돕고 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노인들로 구성된 '실버 폴리스'를 조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실버 폴리스들은 초등학생들의 하교 시간대에 맞춰 학교 주변에 설치된 스쿨존 등에서 교통 안전지도 함께 인근 놀이터와 공원 등을 순찰하며 아동을 보호·관찰한다. 또 평소에도 골목길 등 치안 사각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펼치게 되며 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버 폴리스에게 조끼와 호루라기를 지급하고 위급상황 대처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 서구 관계자는 "전국 최초의 실버 폴리스 운영으로 범죄 없는 행복한 서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며 "어린이 안전 확보와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마을에서도 실버 폴리스와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면 쉽게 볼 수 있는 실버아이사랑이 그것이다. 실버아이사랑 어르신들은 각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하교길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 수고해주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

글 || 기자단_정선아, 장소진 (상학초 6)



www.bsnet.or.kr

부산 북구 · 사상구 지역복지네트워크 “더불어 숲”

북구 · 사상구 지역복지네트워크 컨소시엄은 아동,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각종 사회복지 문제를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자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북구 · 사상구 지역복지네트워크 컨소시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에서 실시한 2006 테마기획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구 · 사상구 지역복지네트워크 컨소시엄은 사단법인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북구, 사상구 22개 기관(부산 북구, 사상구 지역 13개 복지관,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부산한부모가족희망센터,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사회복지관협회, 북부교육청, 북구청, 사상구청, 부산일보사, 한진중공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전화연락 바랍니다.

▶만덕복지관 : 332-8004

지난 3년 동안 저희「부산 북구 · 사상구 지역복지네트워크」에 보내 주신 많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북구 · 사상구 지역복지네트워크」에서는 2009년 11월 사업종료와 함께 그 동안의 사업성과 발표 및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사업종결보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산 북구 · 사상구 지역복지네트워크」 사업종결보고회

- 일 시 : 2009년 12월 4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폴라렉스 뷔페
(덕천R, 폴라렉스 쇼핑몰 스카이 라운지 12층)
- 내 용 : 「부산 북구 · 사상구 지역복지네트워크」
3년간의 사업성과 발표 및 향후 진행방향